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6월 미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인플레 둔화 예상 덕분
- NYT: 연준 선호 물가 지수 5월에 약간 상승
- Bloomberg: 연준 관리 대부분은 7월 금리 원치 않아

[미국 금융]

- Bloomberg: BofA, "연준 정책 전환과 감세로 증시 버블 우려"

[미 관세 영향]

- YahooFinance: 트럼프, "미중 관세 합의 어제 서명했다"
- WSJ: 연방 재무장관, "관세 합의 늦어질 것이다...9월 1일까지"

[글로벌 경제]

- WSJ: 5월 중국의 산업 부문 수익 감소

[인공지능]

- Bloomberg: PwC, "AI로 일처리 빨라져 서비스 가격 낮췄다"
- TechCrunch: 메타, AI 추론 모델 개발 위해 OpenAI 핵심 연구자 채용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배달 로봇들이 마주한 거리의 현실: 눈 속에 갇히고, 속아 넘어지고...
- WSJ: 나이키, 1분기 매출 감소세 둔화...경영 정상화 전략으로
- WSJ: 맥도널드와 도넛 회사 Krispy Kreme 결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climbs as inflation expectations improve

미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인플레 둔화 예상 덕분

- 경제 전망과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6월 미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인플레에 대한 예상 개선되었다.
- 미시간 대학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는 전월의 52.2에서 60.7로 상승했다. 8.5 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지난 2024년 초 이래 가장 큰 폭이다.
- 소비자들이 이제는 관세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큰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NYT: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Was Slightly Hotter in May 연준 선호 물가 지수 5월에 약간 상승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에 따르면 미 소비 지출이 둔화하는 가운데 5월부터 근원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도 올해에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가 5월에 0.2% 상승해 전월보다 약간 더 빠르게 상승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2.7% 상승했다.

NYT 기사

Bloomberg: Majority of Fed Officials Leaning Against July Interest-Rate Cut 연준 관리 대부분은 7월 금리 원치 않아

-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계속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Mary Daly와 Susan Collins를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가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오는 7월 29일과 30일 정례 회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그리고 Tom Barkin과 Austan Goolsbee도 너무 빠른 금리 조정에 신중해야겠다는 입장인데 경제 전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ofA's Hartnett Sees Risk of Stock Bubble on Fed Pivot, Tax Cuts BofA, “연준 정책 전환과 감세로 증시 버블 우려”

- BofA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주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 버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관세로부터 감세와 금리 인하로 추세가 바뀌면서 올해 하반기에 증시의 높은 버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달러 약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올해 이미 주식 시장에 1천6백40억 달러가 투입됐는데, 이는 역사상 연간 투입액으로 3번째 규모다.

Bloomberg 기사

[미 관세 영향]

YahooFinance: Trump says US, China framework 'signed' as Bessent targets Labor Day for key deals **트럼프, “미중 관세 합의 어제 서명했다”**

-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의 비공식적인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로 구체화하면서 관세 및 무역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우리는 어제 중국과 관세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중국 측은 “양측은 협상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중국은 무역 합의를 기반으로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확인했다.
- 연방 상무장관인 Howard Lutnick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WSJ: Bessent Signals Trade Deals Will Be Delayed **연방 재무장관, “관세 합의 늦어질 것이다...9월 1일까지”**

- 연방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9월 초까지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초 협상 마감일인 7월 9일로 못 박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그는 현재 18개 국가에 협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며 “7월 9일 마감은 주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China's Industrial Profit Declined in May **5월 중국의 산업 부문 수익 감소**

- 중국의 5월 산업 부문 수익은 1년 전과 비교하여 9.1% 감소했다. 4월의 연 3.0% 상승과 정반대 현상.
- 이 같은 수익 감소는 수요 약화, 가격 하락, 미 관세 여파에 따른 것이다.
- 항공 우주, 항공, 해양 산업의 수익은 연간 56% 상승했는데, 달 탐사와 항공기 수요에 힘입었다.

WSJ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PwC's AI Chief Says Firm Has Cut Prices as Tech Saves Staff Time **PwC, “AI로 일처리 빨라져 서비스 가격 낮췄다”**

- 세계 최대 규모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PwC는 AI를 사용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 이면서 일부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했다.
- PwC AI 책임자 Dan Priest는 “AI 기술 활용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무기한 지속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려 한다”고 전했다.
- 또한, 그는 AI 기술이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30%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로 고객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아직 PwC의 구체적인 서비스 가격 책정에 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 황이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Meta hires key OpenAI researcher to work on AI reasoning models

메타, AI 추론 모델 개발 위해 OpenAI 핵심 연구자 채용

- 메타가 SuperIntelligence 팀의 AI 추론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OpenAI의 핵 심 연구자였던 Trapit Bansal을 영입했다.
- Bansal은 OpenAI의 첫 번째 AI 추론 모델 o1의 창립 멤버이며, AI 강화 학습을 개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 최근 몇 달간 마크 주커버그는 이 팀을 구축하기 위해 인재 영입을 적극 주도해 왔는데, 구글 Deepmind 연구원과 스타트업 회사 Sesame의 머신러닝 부문 책 임자들을 잇달아 합류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주요 AI 연구진의 합류로 메타는 AI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 지만, OpenAI가 몇 주 내로 개방형 AI 추론 모델 출시를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TechCrunch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lipped, Tricked and Stuck in Snow: The Streets Are Mean for Food Robots

배달 로봇들이 마주한 거리의 현실: 눈 속에 갇히고, 속아 넘어지고...

- 로봇이 공장과 제조업 일자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이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식업계에도 로봇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 코코, 베어, 서브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천 대의 배달 로봇이 이 제 소비자의 집과 호텔 객실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 배달 앱 주문에도 대응 하고 있다.
- 교통량이 적고 공간이 제한된 대학 캠퍼스에서 이 로봇들이 먼저 시범 운영되었 는데, 현재는 30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GrubHub 앱을 이용하는 학생 고객들에 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도미노 피자 또한 휴스턴에서 배달 로봇을 시험 운행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계들은 주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그러나 로봇이 도심에서 눈길에 갇히거나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장난에 속 아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신기하고 재미있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봇이 많은 산업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WSJ 기사

WSJ: Nike Sees Sales Decline Decelerating in First-Quarter as Turnaround Strategy Plays Out 나이키, 1분기 매출 감소세 둔화...경영 정상화 전략으로

- 나이키가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회사 회생을 위한 경영 정상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분기 매출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나이키의 새로운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속에서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특정 제품들에 집중해 사업을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나이키 CEO Elliott Hill은 이러한 전략은 도매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연말 주문량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나이키는 2억 1,100만 달러(주당 14센트)의 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15억 달러(주당 99센트)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여 향후 분기에는 확실한 매출 회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WSJ 기사

WSJ: Krispy Kreme and McDonald's End Partnership 맥도널드와 도넛 회사 Krispy Kreme 결별

- 도넛 생산 회사인 Krispy Kreme는 맥도널드와 제휴를 청산했다.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회사는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맥도널드 2천4백 개 매장에 도넛을 판매해왔다.
- Krispy Kreme는 자체적으로 매출이 높은 매장과 해외 가맹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관세휴전 이어 '히토류 갈등' 봉합 "인도와 매우 큰 합의 할 것"...영국 이어 인도와 무역합의 임박 시사 美상무 "우선 10개국과 무역합의 추진"...백악관은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이후 불거진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26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간 합의는 미중간의 초고율 관세 전쟁을 봉합한 5월 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제네바) 이후 불거진 '희토류-반도체' 등 관련 공급망 갈등을 봉합한 이달 9~10일 2차 미중 고위급 회담(런던)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